



#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통화정책 공조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글로벌연구실  
2020. 5. 29

## ● 최근 확장적 재정·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일부 상존

\* 재정지출 확대(국채발행 급증)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 국채금리가 급등할 수 있으며, 원화가 기축통화(예: 달러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까지 인하하면 자본 유출이 발생하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주장

## ●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채권·외환시장은 신흥국(또는 2009년의 한국)과 차별화되어 선진국과 유사한 안정성을 시현

- 3차 추경(40조원 내외 관측)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채무비율(45% 내외 추정)은 최적 국가채무비율(60%)은 물론 G20(평균 75%), 선진국(105%)을 크게 하회
- 한국은 경상수지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대규모 순대외자산(5,654억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선진국 기준금리(제로 내지 마이너스)를 소폭 상회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0.50%)이 원달러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힘입어 2020년 재정·통화정책의 긴밀한 공조가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기준금리 인하와 국채·회사채·CP 매입을 통해 시중금리가 하향 안정(즉, 국채발행에 따른 구축효과를 상쇄)될 것으로 보여 3차 추경의 재정승수효과(fiscal multiplier)가 클 것으로 기대

작성자: 천대중 전문연구위원(02-2173-0572), 박수빈 조사원(0556)  
책임자: 권영선 실장(02-2173-0569)

## I. 재정·통화정책 공조

### 1. 확장적 재정정책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활동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적극 확대**
  - 실업·기업부도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적극 늘려 민간수요 감소분을 보완하고 일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금융·보증 지원을 확대
- **국가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일본(GDP 대비 237%, 2019년), 미국(109%)은 물론 엄격한 재정준칙을 적용해오던 유럽 국가들도 대규모 재정 패키지를 편성**
  - \*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정한 재정규율(재정적자 GDP대비 3% 한도)을 유연하게 적용
  - 5월말 현재 자국 GDP대비 재정패키지 규모는 미국(12.6%), 홍콩(8.9%), 싱가포르(7.8%), 프랑스(4.7%), 일본(4.0%), 영국(3.7%), 독일(2.3%) 순
- **한국(국가부채비율 41%)도 5.25일 “2020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위기의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
  - 1~2차(총 23.9조원, GDP대비 1.2%)에 더하여 3차 추경규모는 40조원(GDP 대비 2.1%) 내외로 관측
    - \* 1~3차 추경을 모두 합산하면 GDP 대비 3.3% 내외로 관측되어 선진국 평균(8.2%)을 크게 하회

2020년 추가경정예산

(단위:조원)

	시기	추경규모	적자국채	비고
1차	'20.3월	11.7	10.3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2차	'20.4월	12.2	3.4	긴급재난지원금 등
3차	'20.6월	40 내외	40 내외	위기 조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
합계	-	64 내외	54 내외	국채발행규모: '19년 101.7→'20년 180 내외

주: 3차 추경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관측치

자료: 기획재정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2. 완화적 통화정책

- **코로나19 이후 과감한 재정투입 필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역할도 재정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디플레이션 파이터(deflation fighter)로 전환**

- 민간 수요가 급감(즉, 디플레이션 압력이 확대)할 때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보완하고, 이 과정에서 시중금리가 급등하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
  - 일시 유동성 부족에 따른 기업부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회사채·CP 매입 등 신용보강정책도 실시(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제도는 붙임 1 참조)

**■ 한국은행(통화정책)도 정부(재정정책)와 적극 공조하고 민간부문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을 실시**

- 5월28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50%로 인하
  - \*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총재는 대규모 추경편성에 따른 채권시장 수급불균형 우려가 크다며 시장안정차원에서 필요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힘. 다만 국채 매입은 유통시장 매입이 원칙임을 강조
-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여 저등급 회사채·CP를 매입할 계획
  - \* 매입대상(만기 3년내 회사채 AA~BB, CP·단기사채 A1~A3), 매입한도(10조원,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 운영기간(6개월 한시 운영, 연장 가능)

회사채시장 안정화 대책 (단위:조원)

	도입	한도	실적	비고
채권안정펀드	'20.4	20.0	0.62	6.1일부터 회사채·여전채 A+ 등급으로 매입 범위 확대(기존 AA-)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20.4	6.7	0.5	5.29일 발행 예정
금융안정특별대출	'20.4	10.0	-	회사채(만기 5년 이내, AA- 이상)
회사채·CP매입기구	'20.7(E)	10.0	-	저신용 회사채·CP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II.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1. 채권·외환시장 동향**

- 일부에서는 재정지출 확대(국채발행 급증)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 국채금리가 급등할 수 있으며, 원화가 기축통화(예: 달러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로에 근접하는 수준(0.50%)까지 인하하면 자본유출이 발생하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주장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1월 3.00%→2월

2.00%)하고 정부가 추경(28.4조원, GDP대비 2.4%)을 편성할 당시 국고채 3년물 금리(3.26%→3.87%)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1,334원→1,571원)이 급등한 사례가 있음

■ 하지만 최근 채권·외환시장의 움직임은 2008년과는 달리 기준금리 인하와 연동하여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대체로 안정된 모습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하락세를 지속(5.28일 종가 0.817%, 사상 최저)
- 글로벌 달러 유동성 경색 우려로 1,280원(3.20일)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1220~1250원의 좁은 범위내에서 등락(5.28일 종가 1239원)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대내외 신용위험을 보여주는 회사채 스프레드·외평채 가산금리도 2008년 금융 위기 직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 \* 회사채(AA-) 스프레드의 최대 상승폭(bp): 2008년 461, 2020년 77
- \* 외평채 CDS spread의 최대 상승폭(bp): 2008년 675, 2020년 61



주: 종가는 `20.5.28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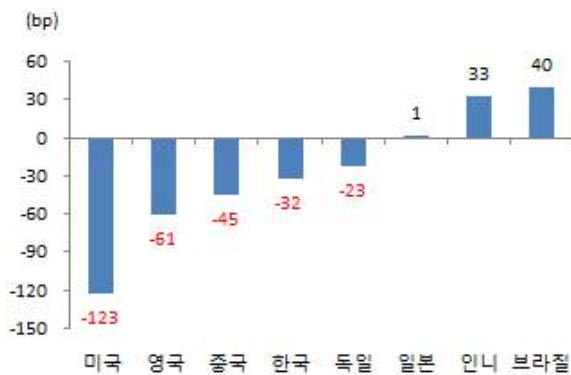


주: 2020.5.28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최근 한국 국채금리·회사채 스프레드의 변동폭은 신흥국과 확연히 차별화되고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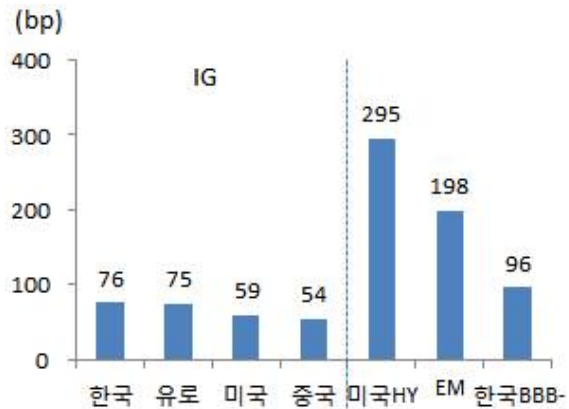
- 연초 이후 브라질, 인도네시아 국채금리가 상승한 반면 한국, 미국, 영국 등은 하락
  - \* 국채 10년물 금리 변동폭(bp): 브라질(+40), 인도네시아(+33), 독일(-23), 한국(-32), 중국(-45), 영국(-61), 미국(-123)
- 연초 이후 한국 우량 회사채의 스프레드 변화폭(76bp)은 미국(59bp), 중국(54bp) 보다 크고 유럽(75bp)과 유사한 수준
  - 한국 비우량 회사채의 스프레드 확대폭(96bp)이 미국 하이일드(295bp), EM 국채 스프레드(198bp) 보다 현저히 작은 수준

연초 이후 주요국 국채 금리 변화



주1) 미국·영국·중국·독일·한국·일본 국채 10년물 기준  
 주2) 2020.1.1.~2020.5.28. 중 변동폭(bp)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초 이후 주요국 스프레드 변화



주1) 유로(투자등급회사채), 미국(회사채 10년, A), 중국(회사채 3년, AA-), 한국(회사채 3년, AA-), 미국HY(하이일드채권), EM(신흥국채권)  
 주2) 2020.1.1.~2020.5.28. 중 변동폭(bp)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 국채 수급여건 전망

■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한국은행도 3차 추경용(40조원 내외 관측) 적자국채의 상당부분을 유통시장을 통해 매입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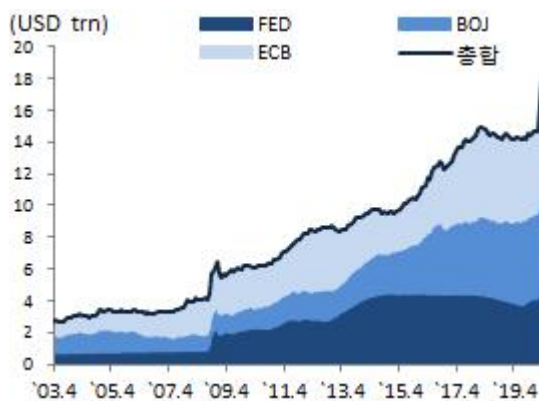
- 주요 선진국들의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100%를 상회하더라도 국채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도 중앙은행의 저금리와 국채 매입 덕분
  - \* 주요국 중앙은행 B/S 증가폭(GDP대비, 1~4월중): 미 연준 11.6%, 일본은행 9.9%, 유럽중앙은행 4.0%, 한국은행 0.9%

\* 한은법(75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으나, 미국·유럽·일본·영국 중앙은행 모두 유통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고 있어 한국은행도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할 것으로 보임

### ■ 3차 추경용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견조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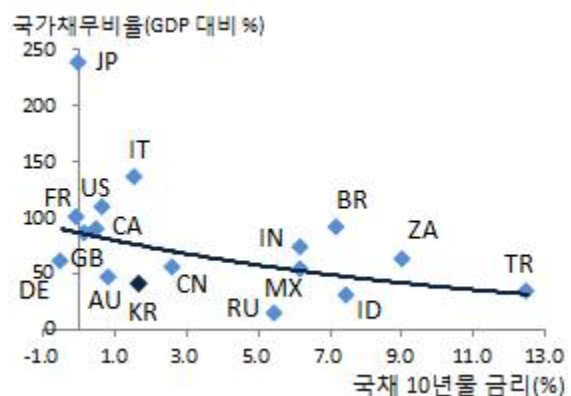
- 외국인 투자자가 달러화를 원화로 스왑하여 국채에 투자할 경우 기대이익이 동일만기 미국 국채보다 높고 한국이 상당규모의 순대외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국채 디폴트 위험이 낮기 때문에 외국인 국채투자에 긍정적 요인

미국·일본·유럽 중앙은행 자산합계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G20 국가채무비율과 국채금리



주: 채무비율은 2019년, 국채금리는 '20.5.25일 기준  
자료: Bloomberg, IMF,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III. 금융시장 안정화의 주요 배경 요인

- 최근 우리나라 채권·외환시장이 신흥국(또는 2009년의 한국)과 차별화되어 선진국과 유사한 안정성을 보이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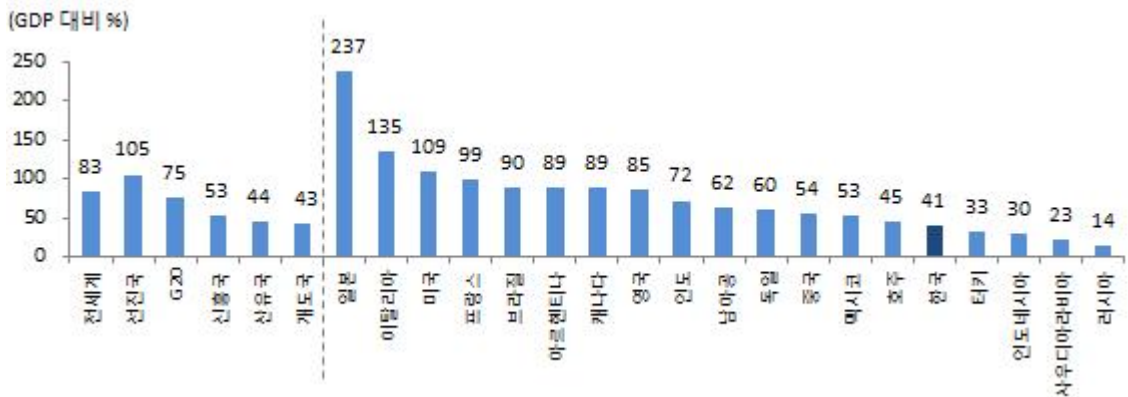
### ① 절대적·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

- 3차 추경(40조원 내외 관측)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채무비율(45% 내외 추정)은 최적 국가채무 수준(60%)을 하회
  - KDI(“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관한 연구”, 2018.12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은 GDP대비 60% 내외로 추정
    - \* 최적채무수준(optimal debt ratio)이란 원칙적으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채무수준으로 정의(실증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국가채무 수준을 의미)
- 한국의 국가채무비율(41%, 2019년)은 비교 대상인 G20(평균 75%), 전세계

(83%), 선진국(105%)을 크게 하회

- 3차례 추경으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겠으나 다른 나라도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어 우리나라 재정의 상대적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
- \* G20국가의 재정·금융지원 규모(GDP대비, 해외는 IMF, 한국은 대책발표기준): 미국 11.1%, 영국 18.8%, 독일 34.0%, 일본 20.5%, 한국 12.8%
- \* IMF는 코로나19 대응으로 2020년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이 17.2%p 높아질 것으로 전망

주요국 국가채무비율(2019년)



자료: IMF(Fiscal Monitor, 2020.4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②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에 따른 외환수급여건 개선

### ■ 2009년 이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한국이 순대외자산이 5,654억달러(2020.3월말 현재, 사상 최고치)로 증가하여 외환시장 안전판 역할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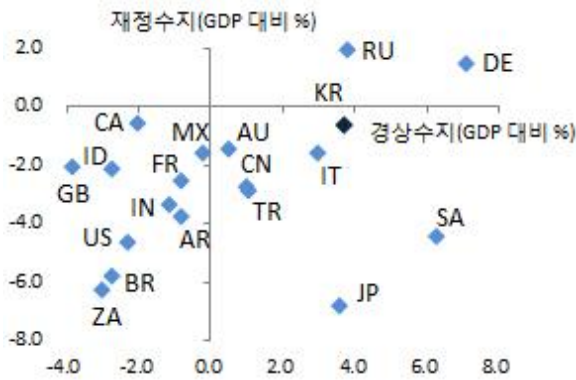
-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600억달러, GDP대비 3.7%) 보다 늘어난 629억 달러(3.9%)로 전망
- 경상수지 개선요인(유가 급락, 여행수지 적자폭 축소)이 악화요인(교역 상대국 보다 양호한 한국의 경제성장률) 보다 우세할 것으로 예상
- \* 2020년 평균 국제 유가 25달러 감소(IMF 전망) 시 한국의 경상수지 개선효과는 200억 달러로 추정(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대규모 순대외자산은 한국은행이 제로에 근접한 수준(0.50%)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환율 급등 부작용이 크지 않은 경제구조로 변화되었음을 시사

-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는 신흥국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환율이 평가절하되어 외채상환부담이 급증하는 경향
- 한국은 경상수지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선진국의 정책금리가 이미 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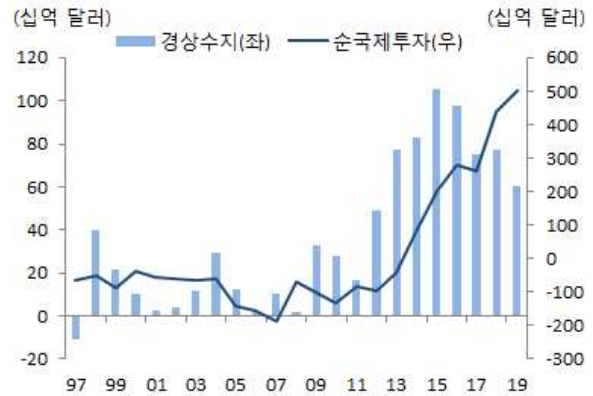
내지 마이너스에 상당기간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수준(0.50%)이 원달러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주요국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주: 2019년 기준  
자료: IMF, CEIC,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한국 순대외자산



주: 2019년 기준  
자료: Bloomberg, IMF,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IV. 시사점

-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힘입어 2020년 재정·통화정책의 긴밀한 공조는 금융 시장 안정을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대규모 추경·기준금리 인하의 정책조합이 국채금리 상승·원달러환율 급등으로 이어졌던 2009년 사례가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국채·회사채·CP매입을 통해 시중금리 하향 안정(즉, 국채발행에 따른 구축효과 상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재정지출의 승수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

**붙임1**

**코로나19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제도**

**1. Fed(미 연준)**

■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준은 ①금융기관에 직접 대출, ②SPV를 통한 채권(회사채,CP 등) 매입·기업대출, ③국채 매입 등의 형태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 ①Primary Dealer 신용창구(PDCF), MMF 유동성 지원창구(MMLF), 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기구(PPPLF)를 통해서 5.22일 현재 890억 달러를 금융기관에 제공
- ②기업어음 매입기구(CPFF), 발행시장 기업신용기구(PMCCF), 유통시장 기업신용기구(SMCCF), 자산담보부증권 대출기구(TALF), 긴급 중소기업대출기구(MSLF), 지자체 유동성 기구(MLF)를 통해 CP·회사채·ABS시장과 중소기업대출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 ③연준은 올해 3.1일~5.22일 동안 국채 1.6조 달러, MBS 0.5조 달러를 매입
  - \* 연준 국채 보유잔액(조 달러): `20.2월말 2.5→ 3월말 3.3→ 4월말 4.0→ 5.22일 4.1
  - \* 연준 MBS 보유잔액(조 달러): `20.2월말 1.4→ 3월말 1.5→ 4월말 1.6→ 5.22일 1.9

**미 연준의 유동성 공급 제도**

명칭	발표일	주요 내용
PDCF	`20.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imary Dealer 신용창구(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3월 처음 도입되어 `10.2월까지 운영, `20.3.20일 재가동</li> <li>- 연준이 적격담보(투자등급회사채·CP·ABS·지방정부채)를 제공한 PD에게 25bp 금리로 최장 90일 만기 담보대출을 제공</li> <li>- 실적: 5.22일 현재 75.0억 달러</li> </ul> </li> </ul>
MMLF	`20.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MF 유동성 지원창구(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10년 운영되었던 AMLF*와 구조가 동일하나 적격 대상증권을 ABCP에서 미국채·정부보증기관채·CP·ABCP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차이</li> <li>* Asset-Backed CP·MMF Liquidity Facility</li> <li>- 금융기관이 머니마켓뮤추얼펀드에서 매입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보스턴 연준이 동 금융기관에 매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을 실시</li> <li>- 실적: 5.22일 현재 364.5억 달러</li> </ul> </li> </ul>
PPPLF	`20.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기구(Payroll Protection Program Lending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역 연준은 중소기업청의 PPP(Payroll protection Program*)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유동성을 제공</li> <li>* 코로나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급여지출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은 이들 중소기업에 대출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청이 이에 대해 보증을 제공</li> <li>- 실적: 5.22일 현재 450.9억 달러</li> </ul> </li> </ul>

미 연준의 유동성 공급 제도 (계속)

명칭	발표일	주요 내용
CPFF	'20.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어음 매입기구(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8.10월 최초 도입, '20.3.17일 재도입 발표</li> <li>SPV를 통해 미국내 적격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및 자산담보 CP(A1/P1 등급 이상)를 직접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준은 CPFF 산하 SPV에 자금을 제공</li> </ul> </li> <li>운영기간: '20.3.17(4.4일부터 가동)~'21.3.17</li> <li>실적 : 5.20일 현재 43억 달러</li> </ul> </li> </ul>
PMCCF	'20.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행시장 기업신용기구(Prim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준이 SPV를 설립하여 대규모 고용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동 기업에 대해 대출을 제공(4.9일부터는 펜데믹 이후 fallen angel 회사채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BB-(BBB3) 등급 이상인 기업의 만기 4년 이하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li> </ul> </li> <li>FOMC의 추가 조치가 없는 한 '20.9.30일에 신규 거래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 제공 한도 : 7,500억 달러</li> </ul> </li> </ul> </li> </ul>
SMCCF	'20.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시장 기업신용기구(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준이 SPV를 설립하여 유통시장에서 투자등급 미국기업 발행채권(만기 5년 이하) 및 동 채권으로 구성된 미국에 상장된 ETF를 매입(4.9일부터는 펜데믹 이후 fallen angel 회사채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 제공 한도 : 7,500억 달러</li> </ul> </li> <li>FOMC의 추가 조치가 없는 한 '20.9.30일에 신규 매입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 제공 한도 : 7,500억 달러</li> </ul> </li> <li>실적 : 5.20일 현재 18억 달러</li> </ul> </li> </ul>
TALF	'20.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담보부증권 대출기구(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8년 최초 도입,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재가동</li> <li>뉴욕 연준이 SPV를 통해 개인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소액대출을 기초로 최근에 발행된 우량 ABS를 보유한 미국회사에 동 ABS 담보하에 비소구 방식으로 대출을 제공(총한도 1,000억 달러, 운영기한 '20.9.30일)</li> </ul> </li> </ul>
MSLF	'20.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 중소기업대출기구(Main Street Lending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격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에 실행한 대출금의 85~95%를 SPV를 통해 매입(한도 6,000억 달러, 운영기한 '20.9.30일)</li> </ul> </li> </ul>
MLF	'20.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유동성 기구(Municipal Liquidity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욕 연준이 SPV를 통해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직접 매입</li> <li>총 한도는 5,000억 달러이며, '20.12.31일까지 한시 운영</li> </ul> </li> </ul>

자료: Fed, 한국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2. ECB(유럽중앙은행)

### ■ ECB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4월 중 385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금융시장에 공급

\* 회사채(56억 유로), 공공채권(297억), ABS(-3억), 커버드본드(36억)

#### ECB의 유동성 공급 제도

명칭	발표일	주요 내용
APP	'20.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매입 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도 : 기존(월 200억 유로) 한도 외에 '20년말까지 1,200억 유로 추가</li> <li>잔액(억유로): '20.3월말 26,665 → 4월말 27,050(385억 유로 증가)</li> </ul> </li> <li>① CSPP(Corporate sector purchase program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채 매입 프로그램</li> <li>잔액(억유로): '20.3월말 2,015 → 4월말 2,071</li> </ul> </li> <li>② PSPP(Public sector purchase program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부문 채권 매입 프로그램</li> <li>잔액(억유로): '20.3월말 21,596 → 4월말 21,893</li> </ul> </li> <li>③ ABSPP(Asset-backed securities purchase program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유동화증권 매입 프로그램</li> <li>잔액(억유로): '20.3월말 312 → 4월말 309</li> </ul> </li> <li>④ CBPP3(Third covered bond purchase program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커버드본드 매입 프로그램</li> <li>잔액(억유로): '20.3월말 2,741 → 4월말 2,777</li> </ul> </li> </ul>
PEPP	'20.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매입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CB가 7,500억 유로의 국채와 회사채(비금융회사 CP 포함)를 매입</li> <li>코로나19 위기 종료 시점 또는 2020년말까지 한시 운영</li> </ul> </li> </ul>

자료: ECB, 한국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3. BOJ(일본은행)

### ■ BOJ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새로운 유동성 공급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양적완화(QE)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

#### BOJ의 유동성 공급 제도

명칭	발표일	주요 내용
QE 규모 확대	'20.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금융지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기업채무*를 담보로 최장 1년간 0% 금리로 자금을 공급</li> <li>* 사채, 단기사채, 보증부 단기외채, 어음, CP 등</li> </ul> </li> <li>CP·회사채의 매입 규모를 각각 1조엔씩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적: 3.1~5.22일 기준, CP(1.5조엔), 회사채(0.4조엔) 매입</li> <li>* CP 잔액(조엔) : '20.2월말 2.2 → 5.22일 3.7</li> <li>* 회사채 잔액(조엔) : '20.2월말 3.3 → 5.22일 3.7</li> </ul> </li> </ul>

**BOJ의 유동성 공급 제도 (계속)**

명칭	발표일	주요 내용
QE 규모 확대	'20.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TF의 매입규모를 2배씩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 3.1~5.22일 기준, ETF(3.1조엔)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TF 잔액(조엔) : '20.2월말 28.9 → 5.22일 32.0</li> </ul> </li> </ul> </li> <li>국채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 3.1~5.22일 기준, 국채(2.5조엔)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채 잔액(조엔) : '20.2월말 492.4 → 5.22일 494.9</li> </ul> </li> </ul> </li> </ul>

자료: BOJ, 한국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4. BOE(영란은행)**

- BOE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3월 자산 직접매입, 금융기관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

**영란은행의 유동성 공급 제도**

명칭	발표일	주요 내용
APF	'20.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매입 프로그램(Asset Purchase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8월 최초 도입</li> <li>- BOE가 국채·회사채를 직접 매입, 3.19일에 한도를 기존 4,450억→6,450억 파운드로 확대, 증액된 한도는 대부분 국채를 매입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월 현재 한도 : 국채 4,350억, 투자등급 회사채 100억 파운드</li> </ul> </li> </ul> </li> </ul>
TFSME	'20.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대출지원 제도(Term Funding Scheme for S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최초 도입</li> <li>- BOE가 중소기업 대출 은행에게 4년 만기의 저리(bank rate) 자금 제공</li> <li>- 한도는 1,000억 파운드이며, 4.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li> </ul> </li> </ul>
CCFF	'20.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자금지원 프로그램(Covid Corporate Financing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E가 만기 1년 이내의 기업어음(CP)을 매입</li> <li>- 한도는 3,300억 파운드이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li> </ul> </li> </ul>
CTRF	'20.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Contingent Term Repo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년 최초 도입, 비상시에만 활용</li> <li>- BOE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담보로 시중은행들에게 자금을 공급(3개월 만기, bank rate + 15bp 금리 적용)</li> </ul> </li> </ul>
WMF	'20.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용자제도(Ways and Means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4년 최초 도입, '08년에도 도입(실적 199억 파운드)</li> <li>- BOE가 영국 정부에 대출을 직접 제공(당좌대월 방식)</li> </ul> </li> </ul>

자료: BOE, 한국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